

익산 미륵사지서 백제 토목기술 확인

미륵사 중원 금당지 축조 공정 · 변화 양상... 오늘 발굴조사 성과 현장공개설명회 진행

익산 미륵사(사적) 내 중원 금당지에서 백제의 토목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기반 축조 공정과 변화 양상이 확인됐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오후 3시 두 차례 현장 공개설명회를 통해 미륵사지 내 중원 금당지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한다.

이번 발굴조사는 익산 미륵사 중원 금당지 고층 심화연구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익산시가 함께 진행한 고고학과 건축학의 학제 간 융·복합적 보완 학술조사이다.

삼국시대 최대 규모 사찰 터인 익산 미륵사지는 익산 왕궁리유적과 함께 백제 무왕시기 익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중 하나이다. 지난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올해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사역을 조성하기 이전의 자연지형과 금당지의 기초부터 내부기단 축조에 이르는 순차적인 토목 공정을 확인했다.



익산 미륵사 중원 금당지 발굴조사 원경

중원 금당지의 건물 기둥 기초시설은 직경 2.2~2.4m에 깊이는 1.2m에 달하며, 흙과 깬 돌을 교차해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존 미륵사지 조사에서 확인된 백제사찰 건축 기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중원 금당지 서편의 상당한 면적에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단 기초와 기둥 기초시설이 개축됐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는 익산 미륵사의 동

원·서원의 금당지 및 삼국시대 권위 건축물과의 축조 방식 비교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지난 2022년 목표지 발굴조사 결과와 더불어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전하는 미륵산(해발 430m) 아래 미륵사의 자연지형과 이를 활용한 백제의 토목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조사단은 중원 금당지 주변에 대한 탐색적 조사를 추가 진행하고 출토된 유물, 석부재, 토양, 유기물 시료 등에 대한 자연 과학적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당지 기단 기초가 개축된 원인과 구체적인 시기를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과 함께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미륵사 금당지의 체계적인 복원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익산 미륵사에 대한 학술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14~26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4~26일까지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장애인이 일상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자의식의 발달, 예술적 감수성 향상 등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지니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으

로, 3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3개소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와 다르게 장애인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전환,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jct.or.kr)이나 교육문화팀(063-230-7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황정의국악예술단 무대 만난다

전주대사슴청 토요상설공연 참가

황정의국악예술단이 2024 전주대사슴청 토요상설공연에 참가한다. 이 공연은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대사슴청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에 위치한 전주대사슴청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국악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주에서 펼쳐지는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황정의 명인

전주대사슴청은 조선 숙종 시기 이후 전주에서 시작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연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주대사슴청은 전주대사슴청의 저변 확대와 전통 예술 공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개관 후 다채로운 전통국악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오는 15일에 참가하는 황정의국악예술단은 가야금 명인 황정의와 제자들이 2010년에 창단한 국악전문예술단이다. 다양한 시도와 협업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 전통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황정의 명인과 그의 제자들, 박순아 명인이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또 전북 출신인 이아현이 사회와 함께 아쟁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총 다섯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곡은 황정의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김강록이 장단을 맡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다. 이 곡은 장단의 연속성 속에서 다양한 주법, 섬세하고 깔끔한 시김새로 연주자의 뛰어난 예술성과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야금 산조다.

두 번째 곡은 황정의국악예술단 멤버들이 연주하는 '침향부'이며, 이어 세 번째 곡으로는 황정의가 12현 가야금을, 박순아가 25현 가야금을 맡아 연주하는 '두 대의 아라

리'다. 이 곡은 정선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12현과 25현 중심의 재즈풍으로 편곡한 음악이다. 네 번째 곡은 황정의국악예술단 멤버들이 무대에 오르는 '가야금 합주 뱃노래, 짚은 뱃노래'다. 황정의국악예술단 멤버들의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수성 반주와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끝으로 '백만송이 장미'와 '홍콩 영화 천밀밀의 OST 곡인 '월랑대표아직심', 'I'm Still Loving You'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 곡에서는 황정의가 12현 가야금을, 박순아가 25현 가야금을, 이아현이 아쟁을, 김강록이 타악을 맡아 연주한다.

이번 공연을 주도한 황정의 명인은 다양한 연주와 봉사활동을 펼치며 제27회 달구벌전국국악경연대회 종합대상(국회의장상), 제25회 전국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명인부 종합최우수상(서울특별시장상), 등을 수상했다. 후학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2015년 제11회 화순풍류 전국가야금경연대회에서 지도자상을 수상했고 전국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7호 예능 보유자인 선영숙 명인 문화에서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이수 중이다.

황정의 명인은 "매년, 매주마다 일취일장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번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황정의국악예술단의 다채로운 음악과 뛰어난 연주 기량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문화재단, 17일 이길준 대표 초청 특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팔복명사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K-아동극의 중심에 있는 '브러쉬씨어터'의 이길준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연극단체에서 유니콘 기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공연예술시장에서의 성공 전략과 세계무대에 진출한 사례를 소개하고, 공연예술 분야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길준 대표는 공연예술 단체 '브러쉬씨어터'는 낚서라는 소재로 라이브 음악과 창의적인 무대를 구성한 '두들림', 관객들과 함께하는 이머시브 공연 등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공연 콘텐츠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디어쇼 '두들림'은 전 세계 도시에서 500회 이상의 월드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팔복명사특강은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명사를 초청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특강이다. 하반기에도 문화예술 트렌드에 맞춘

주제로 특강이 예정돼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팔복명사특강은 공연예술에서 산업가치를 발굴하고 다양한 관객 개발과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K-아동극으로 해외 관객을 사로잡은 이길준 대표의 이번 특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공연과 콘텐츠 기획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신청은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www.jcf.or.kr)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관객심사단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오는 21일까지 국악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소리프론티어X소리의 탄생2'에 참여할 관객심사단 '흥-K(흥쾌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주MBC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리프론티어X소리의 탄생2'라는 타이틀로 공동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모집 자격은 국악을 사랑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네이버 폼(https://naver.me/GUw0QZg)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객심사단에게는 소리축제 유료 공연 티켓, 기념품, 식권 등이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업무협약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임상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생의 한국 전통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한국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문화 관련 체험·교육·전시·공연 등 교류 협력 △국내외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인적·물적 지원 교류 및 공유 협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도영 원장은 "전당은 한민족의 정신과 생활양식이 녹아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



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